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폐막



▲ 강원 강릉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폐회식에서 한국 선수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2024 조직위원회는 1일 오후 8시 강원 강릉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폐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최종구 강원 2024 조직위 대표위원장을 비롯해 올림픽 패밀리, 선수단, 자원봉사자와 관람객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폐막식에서 올림픽기를 차기 개최국에 이양하는 순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4년 뒤인 2028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OC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차기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답페초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탈리아(롬바르디아·트렌티노)를 비롯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사라예보), 중국(베이징 혹은 길림) 등이 개최지 후보로 꼽힌다.

전세계 동계 꿈나무들의 겨울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강원2024)이 14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IOC가 주최하는 올림픽, 패럴림픽과 함께 3대 주요 행사로 꼽힌다.

최지만, 기부 선행 계속... AL 3~4개 팀과 협상 중

메이저리그 최지만(32)이 기부를 이어갔다. 기부금액은 한화로 10억원을 넘어섰다.



▲ 최지만, 사진=연합뉴스

지난 31일 'OSEN'에 따르면 최지만의 미국 에이전시 'GSM'은 최지만이 전날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피닉스 어린이 병원에 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지만은 지난 2021년에도 같은 병원에 3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정기적인 기부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파커 피닉스 어린이 병원 홍보 담당은 "최지만이 지속적으로 어린 환자들을 위해 기부해줘서 매우 고맙다. 시즌 준비를 위해 바쁜 시기일 텐데 직접 병원을 방문해 어린 환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덕담도 나눠줘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고마워했다.

최지만은 "매번 병원에 와서 어린 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만은 지난 12월에도 한국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2016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자선재단 'Choi51'을 설립한 최지만은 매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다양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만 총 10억원이 넘는다.

한편 현재 자유계약(FA) 신분인 최지만은 아메리칸리그(AL) 3~4개 구단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에는 최지만의 행선지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길로이 "LIV 선수 PGA 출전 허용해야"



▲ 로리 매길로이, 사진=golf.com

LIV 골프 시리즈 출범 당시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 선수는 세계랭킹 2위인 '소문난 장타자' 로리 매길로이(35·북아일랜드)다. 그는 지난해 PGA 투어와 LIV 골프가 합병을 선언한 이후에도 "만약 LIV 골프 말고는 공을 칠 무대가 없다면 은퇴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매길로이가 달라졌다.

지난 3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매길로이는 이날 PGA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개막을 이끌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 람(30·스페인), 더스틴 존슨(43·미국) 등 LIV골프로 떠난 정상급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서 이 대회 우승의 가치가 떨어지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밝혔다.

PGA 투어는 2023년 LIV 골프가 출범한 뒤 LIV골프로 옮긴 선수들에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리고 있다.

매길로이는 출전 금지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GA 투어에 돌아와서 뛰고 싶다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골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밝혔다.

매길로이는 PGA투어와 LIV 골프의 합병 등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동업도 하루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